

# 한국사회의 지역문제와 청소년

김 선 업\*

- I. 문제의 제기
- II. 지역발전의 불균형과 기회구조의 격차
- III. 과잉 도시화와 도시문제
- IV. 지역공동체의 해체와 청소년 육성
- V. 지역감정과 학습
- VI. 결 론

## I. 문제의 제기

오늘날 교통 통신과 메스컴의 발달로 인해 지역간 교류와 접촉이 빈번해지고 지역의 지리적 경계는 점차 약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우리사회에서도 지난 수십년 동안의 지역간 물리적 거리는 놀랄만큼 좁혀지고 있으며 더 이상 지역은 물리적 접촉의 장애요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물리적 접근에도 불구하고 사회·정치·경제·문화적 측면에서 지역간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새로운 지역갈등이나 격차가 부각되기도 한다. 산업화와 도시화는 지역간 성장의 차이를 크게하여 지역간의 상대적 격차를 증대시

키며, 지역간 접촉이 오히려 지역간 갈등을 부추키는 등 새로운 지역문제를 낳는 대표적인 사회적 배경이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역문제는 지난 수십년동안 짧은 기간에 국가주도로 추진된 산업화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산업화 초기에 나타나는 인구밀집이나 기능적 집적이 배출 *push*과 흡입 *pull*의 생태학적 원리에 의해 공간적 균형을 다시 회복하는 서구의 경우와는 질적으로 다른 구조적 맥락을 지니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변화는 당연히 지역성원의 가치와 생활양식에 커다란 변화를 수반하는데 특히 청소년에 있어 지역환경은 이들이 성장하는 기본적인 사회적 공간이며 동시에 사회학습의 중요한 준거라는 점에서 지역문제와 청소년 문제와의 상관성은 지대하다.

본고에서는 한국사회의 산업화 과정에서 문제시되는 지역문제를 중심으로 청소년 문제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청소년에 있어 지역은 농촌청소년 등과 같이 거주 공간으로만 고려되어 왔으나 지지의 공간 *supporting space*, 배움의 공간, 다양한 욕구충족의 공간 등과 같이 삶의 전반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적인 공간으로서 보다 총체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먼저 지역을 청소년의 가치관과 태도가 학습, 형성되는 “친밀한 사회적 공간”의 단위로 인식할 때 지역공동체의 해체 및 변화양상에 주목해야 한다. “유의미한 타자”로서의 지역공동체의 상실은 사회적 공존의 학습장으로 그 기능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지방, 그리고 지역내의 공간적 분화에 따른 자원의 지역간 불균형 배분이 유발하는 지역간 불균형 성장은 거주지역 청소년들에게 기회구조의 불평등을 가져오며 나아가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통합에 심각한 장애가 된다고 볼 때 시급히 조정되어야 할 거시적 구조이다.

지역갈등의 또 다른 양상으로서의 지역감정은 지역단위의 외집단이 생성되며 나아가 고착화될 때 지역차별로 발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역에 대한 편견, 경제적 저발전이나 정치적 소외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엘리트에 의한 정치사회적 동원, 연고주의의 문화적 전통 등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유가 어떻든 우리사회의 지역감정은 이미 상당한 세대에 걸쳐 계승되고 있음을 인정할 때 청소년은 “피해자적 사회화”의 직접적 당사자인 셈이다.

## II. 지역발전의 불균형과 기회구조의 격차

지역간 불균등 성장은 지역성장을 결정하는 경제적, 인구·생태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주요 자원의 불균등한 분배현상으로부터 야기되는데 도시와 농촌,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과 지방간의 격차는 지역발전의 격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두가지 측면이다.

60년대 말 이후로부터 농촌경제부분 생산규모의 지역간 차이의 폭이 도시경제부분 생산부분의 그것에 비해서 훨씬 적고, 또한 농업생산 부분의 지역간 차이의 폭은 연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도시경제부분의 그것은 해를 거듭할수록 크게 벌어지고 있다. 1968년, 1976년, 1984년의 우리나라 전체 도시 및 농촌지역의 경제력을 비교해 볼 때 3개년도 도시지역 거주인구는 각각 전체인구의 32.9%, 48.9%, 63.9%였던 것에 반하여 전체 도시지역의 총생산은 각 연도 GNP대비 55.6%, 64.2%, 71.4%를 기록함으로써 매년 도시지역 인구성장 비율을 훨씬 증가하고 있다(김영정, 1993).

도·농지역간의 격차는 주지하듯이 60년대 부터 추진된 공업화 과정에서 기인한 것이다. 당시 산업화 정책의 기본내용은 선진국으로부터의 외자 도입을 토대로 수입된 생산재를 최종 소비재로 가공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성격의 것이었는데 그로 인한 부작용의 하나로 도시농촌간의 불균등 발전이 나타나게 되었다. 즉 막대한 외국자본의 유입과 내자동원으로 인한 고투자와 저임금으로 인해 자본주의적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으나 이로써 공업과 농업의 분업구조가 단절되고 저곡가 정책 등으로 인해 공업지역과 농업지역간에는 심각한 경제격차가 초래되었다(박진도, 1988; 김문조, 1990).

한편 1960년대 이래 지속되고 있는 도시인구집중 현상은 70년대 이후에 그 양상이 다양해져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대도시의 성장이 두드러지는 한편, 대도시 인구가 주변지역으로 팽창되면서 대도시권화의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야기하는 것은 기존의 대도시가 지방중심도시에 비해서 취업기회와 도시서비스 등 제반 집적이익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어 월

등한 인구흡입력을 제공하기 때문인데 이들 대도시의 중추관리 제조업 교육서비스 등의 제반 기능면에서도 도시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대도시권의 비약적인 성장에 비해 중소도시와 농어촌 중심지 등의 비대도시 지역은 크게 정체되었으며 특히 인구 20만미만의 지방중소도시의 대부분은 도시의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고용창출 기반이 취약할 뿐 아니라 교육 의료 등의 생활편익과 직결된 기능도 상대적으로 빈약한 채 침체의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여 실제로 농·어촌 소도읍은 인구규모가 작아 도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인구규모와 관련하여 농·어촌중심도시의 심각성은 농·어촌 중심도시의 하부구조상의 문제에 있으며 의료 교육시설의 부족과 서비스 기능마저 농촌주민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에도 크게 모자라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권용우, 1991; 황희연 1992).

이는 근대화 과정속에서 대부분의 투자가 도시 지역에서 이루어졌으며 특히 서울과 부산 및 동·남해안 공업도시에 집중됨으로써 자본의 투자가 집중된 지역은 노동력과 기술이 집중되고 인적자원이 확보됨으로써 그렇지 못한 지역과는 상대적인 경제적 격차를 보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역간의 경제적 불균등이 초래되는 형식적인

원인은 지역에 따른 자본과 노동력 및 기술의 차이나 자연 및 인간자원의 불균형적 분포를 비롯하여 자원의 공간적 집중화에 의한 집적경제의 차이내지 규모경제의 차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이같은 공간적 배치는 국가주도의 산업화 전략으로 기인했기 때문에 전통적인 생태학적 관점에서 주장하듯이 지역적 불균형이 쉽사리 해소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최종현, 1993 ;김왕배, 1992).

이와 같은 지역간의 격차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혹은 문화적 자원배분의 상대적 불평등을 야기함으로써 청소년 기회구조의 상대적 제약으로 곧바로 연결된다. 고용을 위시한 제반 서비스 수준의 격차로 말미암아 사회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생활을 영유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아래의 표에 제시된 도시, 농촌별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진학을 통계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표 1〉은 중학교의 도시·농촌진학율은 각각 96%와 86%임에 비해 고등학교의 도시·농촌 진학율은 59%와 38%로 그 격차가 커지고 벌어지고 있으며 특히 고등학생의 중퇴율에 있어 농촌 학생의 중퇴율은 도시학생의 2배이상에 달하고 있어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환경의 상대적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1〉 도시와 농촌중학교의 진학율, 중도탈락율 및 전입·전출율 비교

	중 학교		고 등 학교	
	도 시	농 촌	도 시	농 촌
중 퇴 율	.96	1.25	1.51	3.21
전 입 율	2.26	.79	.74	.56
전 출 율	1.64	1.83	.58	.93
진 학 율	96.44	86.15	59.25	37.64

출처 : 한국청소년학회, 1994 : 178

(단위 : %)

모든 사회시설과 기능의 집중화함으로써 경제적 격차는 제반 사회시설의 미비로 직접 연결됨으로써 지역의 경제적 격차에 따른 파급효과는 단지 사회경제적 차원에 국한되지 않는다. 아래의 농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 드러나듯이 문화시설의 확충이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지역간 사회경제적 격차가 나아가 문화 및 여가 환경의 격차를 나온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한국사회의 지역구조가 위는 지나치게 크고 아래는 몹시 허약한 극히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한국사회에서 지역은 좁사 “하나 있으면 다 있고 하나 없으면 다 없다”는 식의 “모조변인 dummy variable”의 의미에 비유될 정도이다. 즉 서울 및 대도시는 경제, 문화, 의료 등 모든 사회시설이 완비된 지역임에 비해 여타지역은 그것중 아무 것도 갖추지 못한 지역으로 양분되어 인식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표 2〉 농촌청소년의 불만족 사회 환경

(문: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회환경(복수응답))	
문화시설	61.6(%)
교통·통학문제	35.8
교육시설	29.8
공해문제	16.7
의료시설	16.3

출처: 한국청소년학회, 1994: 360

객관적인 사회적 자원의 상대적 결핍은 나아가 사회심리적 박탈감을 낳는 배경이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교통·통신의 발달로 지역간의 지리적 접촉이 빈번해짐으로써 자신의 여건을 비교하는 준거로 다른 지역이 고려될 여지는 더욱 높다. 생활만족도, 자기자신에 평가 및 다른

아이와 비교한 자신의 능력 평가에 대한 아래의 설문결과는 지역적 격차에 따른 사회심리적 효과를 반영한다.

즉 생활전반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 중소도시나 읍·면지역 청소년이 대도시 청소년의 만족도에 비해 낮으며 특히 다른 아이와 비교한 상대적 평가에서는 대도시 청소년의 44.7%, 중소도시 청소년의 37.5%, 읍·면지역 청소년의 31.8%가 자신의 능력이 다른 아이보다 나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상대적 평가에서 지역에 따른 차이가 더욱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의 능력이나 지위에 대한 위축된 정체의식은 객관적 현실이 투영된 것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낮은 자긍심이 현실적 장애앞에서 쉽게 포기함으로써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력을 위시한 지역별 사회적 기반의 차이에 따른 청소년 생활양식의 분화도 매우 부정적인 양태를 드러내고 있다. 가치, 태도 및 행위양식에 있어 청소년의 문화적 분화는 성,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다양하게 발생하는데 지역이 청소년 문화의 분화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게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에서는 유행의 재빠른 파급력을 들어 청소년 문화의 지역적 통일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같은 판단은 표피적 관찰에 국한된 것으로 지역분화에 따른 하위문화적 속성의 판별은 어렵지 않다.

예컨대 대도시 지역은 주로 소비적 성향을 중심으로 사교적인 또래문화가 발달하고 있는데 비해, 농촌지역 학생들은 단순하고 때로는 비사회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듯이(민무숙, 1993) 지역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문화적 분화양상은 점차 뚜렷해지는 추세에 있다.

〈표 3〉 거주지역별 생활전반, 자기자신에 대한 만족도 및 다른 아이와 비교한 자신의 능력 평가

	생활전반에 대하여			자기자신에 대하여			다른 아이와 비교한 자신의 능력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좋다	보통	나쁘다
대도시	52.3	28.9	18.9	45.8	29.6	24.6	44.7	47.3	7.9
중소도시	41.4	36.7	21.8	38.7	34.1	27.2	37.5	51.7	10.8
읍면지역	42.2	35.7	22.1	38.5	32.5	29.0	31.8	57.4	10.7

(단위: %, N=4026)

### Ⅲ. 과잉 도시화와 도시문제

지역간 불균등 성장이 농촌이나 지방의 경제적 격차를 가져옴으로써 문제를 낳았다면 과잉도시화는 대도시의 지역문제를 특징짓는 핵심적 현상이다. 과잉도시화에 의한 도시의 과밀화는 대도시 지역의 과밀 학급, 교통의 지체로 인한 통학의 어려움이나 소음, 환경오염으로 인한 신체적 장애 등과 같이 청소년 교육의 물리적 환경의 장애를 가져왔지만 과잉도시화가 청소년 교육에 미치는 대표적인 부정적 징후는 무엇보다도 도시와 공업 중심의 산업화가 농촌으로부터 많은 인구를 방출한 결과 도시이주의 상당부분이 자리잡은 유기적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있는 “도시비공식 부분”의 비대화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 1. 도시비공식 부분의 과대성장과 유해환경

도시비공식 부분의 과대성장은 한편으로는 한국사회의 향락산업의 이상비대화를 낳았으며 특히 이들 대부분이 청소년을 주고객으로 하는 청소년 유해업소의 전형을 이루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도시의 공식부분에 통합되지 못한 광범위한 도시빈곤층이 양산되었으며 빈곤상태의 지속으로 말미암아 세대간 빈곤세습의 가능성을 강화

게 노정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과잉도시화에 의한 유희노동력과 잠재적 실업자군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공식적 산업부분에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식으로 일부 편입되기도 해 왔으나 기업적 형태의 향락업소에서 유인하는 보다 나은 조건에 흡수되거나 수많은 영세적 자영업자를 배출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특히 투자의 영세성과 관련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에서 이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부분이 결국 청소년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청소년 유해업소의 전형을 이룬다.

이러한 향락업소로 분류되는 영세업자군은 지역적으로 주로 도시변두리에 지역이나 학교 주위나 주택가에 산포함으로써 청소년들을 꼬여들이는 주요 흡입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근래 행해진 한 조사에 의하면 법적으로 유해시설이나 업소의 설치가 금지되어 있는 학교주변 정화지역내의 유희시설이나 업소의 50%정도가 유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서울 YMCA 시민자구본부) 여기에 비정화지역내의 유해업소 및 공인되지 않은 무허가 업소까지 합한다면 청소년에게 유해한 접객업소의 총수는 국내 접객업소의 총수와 맞먹는 엄청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이례적으로 높은 집이나 학교에 대한 유해업소의 지리적 침투성의 부정적 효과는 먼저

청소년 업소출입의 효과를 배가한다는 사실에서 관찰된다. 지리적 근접성이 대상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생성한다는 사회심리학적 명제를 적용해 볼 때 청소년 개개인의 심리상태나 욕구와 관계없이 공간적으로 산포되어 있는 유해업소가 하나의 보편적인 행위 촉발요인을 지닌다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한다. 업소출입이 범죄와 같은 일탈적 행위로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쾌락적 행위에 탐닉함으로써 기존 규범의 정당성에 회의를 품게 되고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통해 비행이 학습되는 등의 부작용은 이미 여러차례 지적된 바이다.

도시비공식 부분의 이상비대화에 따른 유해업소 범람이 가져오는 또 다른 해악은 이들 업소들이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끌어들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이다. 이들 업소군은 자본이 영세하고 경기변동에 취약하고 여기에 성인노동력이 힘들고 낮은 임금을 기피하는 현상이 가세하여 식당, 레스토랑, 카페에서 주점, 룸싸롱에 이르기까지 영세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한 미성년 청소년의 탈법적 고용이 빈번하다.

청소년 취업은 부모 동의나 법적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의 고용시 탈법이나 노동력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최근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출청소년의 경우에서 보듯이 업소취업이 가출청소년들의 은신처나 도피처로 이용됨으로써, 유흥업소 취업이라는 직업적 생애가 지속된다는 점이 더욱 우려된다(김영지, 1994).

기실 오늘날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공식적 대응이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감독기관과의 유착이나 직무유기 등에도 이유가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영세업주들이 경기변화나 제도적 조치에 극히 취약하여 자본이 영세

하고, 시장의 변화무쌍한 상황적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없는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기 때문에 도덕주의적 설득이나 계몽에 의해서 쉽게 영업을 포기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 2. 도시빈민층의 형성과 빈곤세습

한국사회의 도시빈민층 성격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들이 있어 왔는데, 취업과 실업사이를 유동하는 고용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가계노동의 일상화는 한국의 도시빈민층의 공식부분에 편입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빈곤상태를 지속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다.

빈민상태가 자녀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크게 경제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으로 양분해 볼 수 있는데 전자가 주지하듯이 빈곤으로 인한 경제적 상황의 악화가 자녀들에게 불리한 청소년 육성과 교육에 불리한 환경이 되는 것을 말한다. 적은 가계수입으로 인한 의·식·주 생계가 열악하고 주거·음식물 비중의 부담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교육비 지출이 억제될 수 밖에 없고 생존압력의 부담으로 가구주 이외에도 모든 가구성원들의 추가적으로 취업해야하는 상황은 자녀교육의 직접적 장애요인이다.

가사에 대한 보조노동 등으로 학업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가계의 후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민학교때까지 학교성적이 좋은 빈민층 자녀들도 중·고등학교에 올라오면 학업성적이 급격히 떨어지는 등 빈곤 상황은 특히 자녀들이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학업적 성취에 더욱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한편 빈곤의 문화적 환경은 빈곤상황이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사회문화

적 준거로 자리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라틴 아메리카 도시빈민층의 생활양식에 대한 관찰을 통해 얻어진 일종의 하위문화로서의 빈곤문화는 부모들의 낮은 성취의식이나 사회규범의 정당성에 대한 회의, 대안적 생활양식으로서의 범죄 등 빈곤으로 인해 형성된 사회문화적 특징은 자녀들에게도 심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적 방치, 부정적 가치의 의식적 무의식적 학습 등이 부정적 효과를 낳는다. 그간 우리사회 빈민층은 경제적 박탈에도 불구하고 상향이동에 대한 높은 열망과 자녀에 대한 높은 교육열을 들어 빈곤이 자녀에게 세습될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보는 전망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과거 연구에서 확인되었던 빈민층 청소년들의 규범적 통합이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간접적 근거들이 적지 않다. 가족적 통제와 약화와 더불어 또래끼리의 결속이 강화되고 사회경제적 분화에 따른 청소년의 하위문화적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빈곤의 하위문화가 형성될 가능성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계급적 분화가 청소년층 스스로에 의해 객관적으로 투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보고가 근자에 들어 점증하고 있음은 특히 주목을 요한다. 빈곤문화가 서구의 예와 같이 범죄문화와 직접 연결되는 상황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부 중산층 출신의 청소년들이 새로 편입되는 경향도 없지 않지만 빈곤층 출신 자녀들이 청소년 비행의 핵심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향도 위에서 지적한 빈곤이 세습되는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

#### IV. 지역공동체의 해체와 청소년 육성

공동체 해체는 “공동체로서 행동하지 못하는 상태”로서 “공동체의 성원들이 공동행동을 통해

공동체의 당면한 문제들을 자발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 현저하게 약화되었거나 결함을 지니는 상태”(임희섭, 1991 : 121)를 뜻하는데 도시화로 인한 전통적인 공동체의 해체를 지적한 위스의 도시성 개념이래로 도시학자들은 이질성과 복잡성의 증대가 가져오는 도시사회의 공동체 해체 양상에 주목해 왔다.

지역사회 해체는 사회심리적, 사회관계적 및 조직적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관찰될 수 있다. 지역공동체는 지역성원들이 생활하는 터전임과 동시에 지역성원들에게 일정한 정체감과 소속감을 부여하는 단위라는 점에서 공동체에 대한 주민들의 낮은 소속감과 애착, 그리고 지역의 공공문제에 대한 무관심과 낮은 참여의식은 심리적 차원의 공동체 해체를 특징짓는 양상들이다.

사회관계의 측면에서 해체는 사회성원의 이질성으로 인한 사회해체현상을 가리키는데 특히 도시문화와 농촌문화와의 이질성, 종교적 이질성, 그밖의 인종적 민족적 구성의 이질성으로 인한 가치, 규범, 생활양식의 차이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문화갈등으로 인한 결속력의 약화가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지역사회는 사회성원들이 사회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서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로 지역사회 조직은 사회복지자원과 사회복지요구간의 점진적이고 보다 효과적인 적응을 유발하고 유지하는 과정(Norman R. Moore, 1970 : 235)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조직적 차원에서의 공동체 해체는 공동체 성원들이 만족할 만한 생활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조직적 능력이나 수단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로써 지역사회내의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고 나아가 이를 사회성원들에게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할당하는 체계가 결핍되어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산업화·도시화가 반드시 공동체의 해체

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공동체 해체의 양상 또한 다양하다. 도시사회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될 수도 있으며 공동체 해체가 대도시에 한정된 현상도 아님을 보여주는 많은 역사적 실례들은 적지 않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동체 해체양상은 단순히 대도시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농촌사회를 포함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일차적 특징으로 한다.

먼저 대도시에서의 공동체 해체현상은 성원들의 지역사회에 대해 정체감이나 소속감을 거의 갖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단적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대부분의 대도시가 농촌인구의 급격한 유입에 의해 짧은 기간에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직장의 이동이나 지가상승에 의한 개발이익을 얻기 위한 도시내의 거주지 이동도 매우 잦아 유래없이 높은 지역적 이동을 경험하는데 이유가 있다.

공업화 과정에서 새로 등장한 신흥공업도시나 최근 대도시 주변에 형성된 신도시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아 현지에 처음부터 살아온 주민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고 주민들의 대부분이 외지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지역에 일시 거주할 목적으로 내려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 주민들의 이동율이 특히 높다. 새로 형성된 이들 도시들은 외래 인구의 급격한 유입으로 인한 이질화, 원래 거주하고 있었던 주민과 새로 유입한 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해 지역사회 통합이 위협을 받고 있다.

그간 도시지역에서 시행되어 왔던 지역개발이나 재개발사업도 현지의 오래된 주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내 보내고 이질적인 인구가 유입되게 함으로써 기존 주민들간에 형성되어 있던 결속을 깨뜨리는 요인이 되었다. 여기에 중앙집중적 행정이 오랫동안 지속됨으로써 지역차이의 경험이 일천한 정치행정적 요인이 가세하여 현대 한국사회

에서 도시공동체 형성을 어렵게 한다.

농어촌 지역의 공동체 해체는 한층 심각한 양상을 띤다. 젊은 층의 인구이출은 재능의 유출과 인구구성의 왜곡을 초래하며 최근의 UR이후의 농업개방은 한층 농촌사회에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농촌에서의 지역개발사업도 도시에서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현지 농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외지 자본의 이익을 우선함으로써 현지의 주민들은 어느 정도 값이 오른 땅값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거주지와 생업을 찾아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게 되는 것이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역개발사업이 가져온 결과인 것이다.

농촌에 대한 애착심이나 농업에 대한 자긍심을 잃고 있으며 나아가 농업의 전망에 매우 비관적이라는 사실들이 근래의 보고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데 특히 농촌지역의 해체는 특히 기존에 유지되어 왔던 공동체의 해체를 수반하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은 더욱 심각하다.

현대 사회문제의 배경을 지역사회의 해체로 부터 설명하는 많은 사회학자적 저작들은 지역사회 해체가 행위양식이나 가치관에 미치는 보다 직접적인 효과에 주목한다. 특히 인종적 이질성으로 인한 지역사회 통합성의 결여, 근린의 사회통제적 기능 약화 등은 핵가족화로 인한 전통적인 친족 보호망의 상실과 함께 청소년 일탈이나 비행의 주요 배경으로 간주되고 있다.

심리적 측면에서의 공동체 해체는 청소년의 정체감 형성에 있어 사회적인 준거가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자들이 지적하듯 사회적 자아의 형성은 그 준거가 가족으로 부터 주위 사람들로 그리고 나아가 지역사회로 그 영역이 확장되어감에 따라 완결된다. 청소년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정체감이 높지 않음은 성장기에 유



의미한 타자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인격형성에 있어 영향을 받은 사람으로 절대 다수가 부모나 형제를 들고 있고, 지역사회 인사나 성원을 지적한 경우는 무시해도 좋을만큼 미미하다는 결과가 이를 반영한다(김문조·권이중·김선업, 1993).<sup>1)</sup>

특히 농촌지역 청소년들의 살고있는 지역에 대한 애착은 더욱 낮으며 농촌의 장래를 매우 비관적으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고있는 지역이 긍정적 준거집단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 준거집단화하는 경향마저 있다. 또한 지역사회는 생활의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장이라는 점에서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는 사회적 윤리를 습득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지역사회 단위의 자원적 행위나 단체들이 없는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기실 오늘날 청소년의 가치성향 가운데 부정적 속성으로 평가되는 지나친 이기주의나 도구주의적 가치도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나 봉사와 같은 공동체적 경험의 결여에서 기인하는 바 크다고 평가되며 여기에는 심리적 차원의 공동체 해체로 인한 기능적 결핍이 기본적 원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경제적 지원 못지않게 정서적 심리적 지지의 기능을 수행해 왔던 공동체적 관계의 와해는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지망이 붕괴하고 있음을 뜻한다. 청소년에 대한 이웃이나 주위의 무관심에서 관찰되듯이 청소년에 대한 후원과 보호 기능은 전적으로 가족의 책임으로 부과된다. 이같은

상황은 특히 가족기능의 해체에 직면할 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능적 대안물”이 제공되지 못함으로써 겪게 되는 어려움이 편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확인된다.

조직적 해체로 인한 지역사회 자원의 고갈과 결핍은 지역사회가 청소년의 욕구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서비스의 전달 수단이나 체계가 미비되어 있음을 뜻한다. 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할 수 있는 사회의 실정에 적합한 복지전달체계의 미비, 사회의 자원을 동원하기 위한 효율적인 동원체계의 결핍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 조직은 중앙에서 결정되는 자원을 단순 전달하는 기능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최경구·김선업, 1995).

## V. 지역감정과 학습

역사적으로 지역간의 관계에는 어느 정도 경쟁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지만 오늘날 한국사회에서의 지역갈등은 단순히 지역을 단위로 하는 경쟁적 관계를 넘어서서 전체 사회의 통합에 심각한 위협이 될 정도로 갈등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한국사회학회편, 1990).

지역갈등의 원인으로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간 불균등 발전, 엘리트 총원에 있어서의 지역 차별 등과 같은 거시적 원인을 지적하는가 하면 정치엘리트에 동원이나 연고지의 등의 정치문화적 요인을 중시하기도 하는데 지역갈등의 원인은 하나의 원인으로 귀인되기 보다는 여러 요인들의 복합적 상호작용의 산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김문조, 1993).

1) 자신의 인격형성에 영향을 준 사람으로 부모(50.0%), 친구(24.0%), 은사(8.3%), 형제자매(7.1%) 성직자(2.4%)인데 비해 성직자 사회지도자(1.7%)나 주위 어른(1.4%) 등의 순이다.

어떻든 우리 사회에서 흔히 지역주의로 일컬어지는 지역갈등은 편견과 차별이라는 두 양식<sup>2)</sup> 통해 사회적 행위나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지역감정은 지배층은 물론 일상생활에 깊이 확산되고 수용되어 있으며,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보편적으로 관찰될 수 없는 독특한 것으로 생활기회의 우열에 근거한 특권의식, 우월감 또는 반대로 피해의식, 반발감을 기조로 하며, 특히 영·호남간에 그리고 호남지역에 대한 비호남지역의 부정적 태도를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은 지역감정이 청소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연구된 바 없지만, 청소년을 피해자적 사회화의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에서 그 부정적 효과가 설명된다. 여타의 사회적 규범을 학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편견도 학습되며 주로 생애의 초기에 습득하는 내용이 중요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sup>3)</sup>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지역감정의 실태를 분석한 많지 않은 실증적 연구들은 대학생이나 군인 청소년의 지역편견이 성인에 못지않게 매우 심각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특정 지역에 대해 고정된 인식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지역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와 다른 지역 사람들의 평가간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sup>4)</sup>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전라도인과 경상도인은 서로를 위협적인 것으로 지각하고 있으며 예상과 달리 집단간 상호작용의 경험은 기존의 집단간 편견을 감소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편견적 태도를

간화하는 부정적 결과마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김진국, 1987).

청소년의 지역감정의 내면화는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여러 매체들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청소년은 피해자적 사회화의 대상이다. 이같은 지역간 편견의 형성에 있어 가족, 또래집단, 학교, 군대집단은 물론 매스 미디어가 주요 매체로 작용하며 특히 인생의 초기 단계에 부모와 형제로 부터 가족 학습이 태도형성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학생의 70.2%가 가정에서 지역감정의 사회적 학습이 이루어졌으며, 국민학교에서 22.7%, 중학교 37.6%, 고등학교 31.2%, 그 이후가 6.5%로 전체 대학생의 62.6%가 중학교를 졸업하기 이전에 그리고 93.5%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이전에 가정에서 지역편견을 학습한 것으로 보고한다(고홍화, 1989).

가족이외에도 또래집단이나 학교 군대집단은 지역적 편견이 학습되는 대표적인 매개체로 작용하며 매스미디어에 의한 학습도 무시할 수 없다. 학교경험중 지역적 편견을 교사로 부터 들은 경우가 고등학교에서 51.5%, 중학교에서 33.7%, 대학교에서 7.9%, 국민학교에서 6.9%의 순이며, 군대를 통해 지역편견의 언사를 경험했다는 비율이 군복무 경험이 있는 학생의 절대치수인 86.5%를 차지한다는 통계들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의도와 관계없이 어른과 기성사회에 의해 지역감정이 동원되고 있음을 실증한다.

2) 전자가 표출적인 행동을 뜻한다면 후자는 내면적 태도를 지칭한다.

3) 미국사회의 인종편견에 관한 실험적 연구들은 이미 국민학교 저학년에서 인종간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고홍화, 1989).

4) 예컨대 서울사람은 사교적, 타산적, 이기적이고 충청도 사람이 예의가 있고 소박하고 성실하며 경상도 사람은 시끄럽고 의리있고 결단력이 있으며 전라도 사람은 대체로 생활력이 강하고 타산적이고 야심적이라는 평가가 청소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김진국, 1977).

사실 청소년에 있어 보다 중요한 지역감정의 정치적 폐해는 지역감정에 따라 정치가 운용된다는 것을 보고 듣게 됨으로써 정치과정의 공정성이나 민주성에 대해 일찌기 회의를 품게 된다는 점에 있다. 즉 법적 제도적 논리의 형식성과 실제의 정치논리 사이의 괴리에 대한 원초적 경험으로부터 정치적 냉소주의나 정치적 무관심 그렇지 않으면 수단합리성과 같은 도구주의가 체득될 가능성이 다분한 것이다. 결국 지역감정이 청소년들에 확산되면 될수록 정치발전의 전망은 그만큼 밝지 않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

## VI. 결 론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지역문제의 특징을 청소년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에 주목하여 설명해 보았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는 본고의 관심을 벗어나는 것이지만 지역문제의 발생원인을 중심으로 문제해결의 기본 방향과 함께 간단히 정리해 보기로 한다.

무엇보다도 강조되어야 할 것은 지역이 청소년의 행위양식과 태도에 미치는 심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깊이있게 인식해야 한다. 지역간 경제력의 격차, 대도시에 산재한 비공식 부문, 지역공동체의 해체, 그리고 지역감정의 확산은 거시적인 사회구조적 변화로부터 기인한 것이지만 그것의 왜곡은 청소년의 생활세계에 여실히 반영되어 결국 건전 청소년의 육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 경제적 박탈로부터 기인한 귀속적 지위부여

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빈곤으로 부터 탈출하기 어려운 구조적 배경은 빈곤계층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두려움을 주고 있다. 또한 도시비공식 부문에 포진한 유해업소는 청소년 스스로의 도덕적 무장에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지역감정의 발효에 직면하여 무의식적인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역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역의 본래적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다. 균형있는 발전을 통한 지역간 경제력 격차의 해소, 비공식부문에 대한 복지적 시혜,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기능의 복원 등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해결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같은 해결책은 매우 거시적이고 전반적인 구조의 변혁을 수반한다는 측면에서 쉽사리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미시적 방법과 거시적 방법은 문제해결의 양단을 이루는 것이지만 미시적 해결책은 부분적이거나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실효를 거둘수 있다고 볼 때 실천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이런 의미에서 지역사회 복원을 위한 움직임은 지역단위로 부터 출발되어야 할 것이다. 때마침 정착되기 시작한 지방자치는 지역문제 해결의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볼 수 있다. 지금의 지역문제가 그간의 중앙중심적 정책으로부터 연유한 측면이 많다고 볼 때 지방자치는 지역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요구의 결집과 참여가 청소년의 주체적 역량의 제고와 함께 요구됨은 물론이다.

## 참 고 문 헌

고홍화·김창주. 1989. 「한국인의 지역감정」, 성원사

김문조. 1990. 「한국지역주의의 형성과 성격」,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의 지역주의와 지

- 역갈등」, 성원사
- 김문조·권이종·김선업. 1993. 「한국10대 청소년의 의식구조 기초자료편」 삼성복지재단
- 김영정. 1993. 「불균등 지역성장의 문제 오늘의 한국사회」, 나남
- 김영지. 1994. 「가출청소년의 삶과 문화에 대한 생애사적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 김진국. 1987. 「영호남 대학생의 상호간 차이각 연구」, 사회심리학연구 3(2)
- \_\_\_\_\_. 1977. 「한국대학생의 지역적 편견연구」, 전국대학생 학술연구발표논문집
- 김왕배. 1992. 「산업구조조정과 국가의 역할—1970~80년대 국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현대사회 41
- 박진도. 1988. 「8.15이후 한국농업정책의 전개과정」 한국농어촌사회연구회 편, 「한국농업 농민문제 I」 연구사
- 임희섭. 1991. 「현대 한국사회에서의 공동체 해체의 문제」 현대한국사회문제론
- 조경근. 1987. 「정치사회화의 시각에서 본 영·호남간의 지역감정 실재와 악화 및 그 해소」 재북미 한국인 정치사회 합동학술대회, 한국정치학회 7 : 107—126.
- 민무숙. 1993. 「고교생 또래문화의 지역간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4권2호, 한국청소년개발원
- 최경구·김선업. 1995. 「청소년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한국사회복지논총 4호, 한국사회복지연구소
- 최종현. 1993. 「도시화와 중추성문제 오늘의 한국사회」, 나남
- 한국사회학회 편. 1990. 「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갈등」 성원사
- 황희연. 1992. 「국토의 불균형발전 문제와 대책」 현대사회 41 : 42—54
- 한국청소년학회. 1994. 「한국농촌청소년 문제의 현황과 대책」
- Norman R. Moore. 1970. “The Practice of Community Organization,” in Robert W. Klenk and Robert M. Ryan, The Practice of Social Work, Balmont, Calif. : Wadsworth Publishing Company